

##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.

\* (매일경제 12.25.) “넉달 공들인 배달수수료 상생안 사실상 무산” 기사 관련

### < 보도 내용 >

-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-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가 40여 일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울스톱된 상태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 정부 입장 >

-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을 준비 중이며,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<br>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  | 고인혜 (044-200-4365)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| 박 찬 (parkchan36@korea.kr)  |
| 담당 부서 |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<br>정책조정총괄과      | 책임자 | 과 장   | 김승태 (044-215-4510)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| 박가영 (gayoung0816@korea.kr) |
| 담당 부서 |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<br>상생협력정책과  | 책임자 | 과장(代) | 김혜남 (044-204-7925)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| 정지수 (water1357@korea.kr)   |
| 담당 부서 |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<br>식품외식산업과 | 책임자 | 과 장   | 김재경 (044-201-2151)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| 박춘규 (ckpark@korea.kr)      |